


THE 60TH ANNIVERSARY

송암교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송암 함태영』 출판기념 감사예배



일시 2022.8.14(주일) 오후 4시
장소 송암교회 2층 예배당

2022년 8월 15일(월)

칼보다 강한 무기!

찬송 88장

시편 44:1-8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6절)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했던 전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리여부는 하나님을 의지했는지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서 뒤따라오던 애굽군을 기적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한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같은 교훈을 알려줍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시편은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내쫓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활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구원이 베풀어졌습니다. 우리도 활과 칼 같은 무기를 의지하기보다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인생의 무기로 삼읍시다.

질문 : 나는 무엇을 자신의 무기로 삼고 있나요?

기도 : 주님, 나의 힘을 의지하기 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2022년 8월 16일(화)

사적 공간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찬송 94장

로마서 9:30-1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10:4)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었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의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할레나 선행, 또는 고행등.. 인간의 행위로 자기 의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믿는 자들도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세운 공공의 교회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의해 사적인 공간으로 변질 된 것이죠. 이는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사적인 공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공회를 세워갑시다!

질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기도: 주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사적인 욕심에 좌지우지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공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소서. 아멘

2022년 8월 17일(수)

수정된 율법조항

찬송 293장

마태복음 5:43-48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 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마5:45b)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자이든 불의한 자이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함부로 선과 악을 나누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마5:44) 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열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의 선하심을 닦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질문: 악인과 불의한 자를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했나요?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해 봅시다.

기도: 주님!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2022년 8월 18일(목)

절망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송 86장

시편 107:1-9, 43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1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습니다.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2절),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4절) 그럼에도 이런 상황들을 겪은 시인은 앞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위기가 할만한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본 시편의 마지막절에 시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줍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직접 보는 것, 경험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그 너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현실을 살아내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질문 : 절망의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기도 : 주님,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8월 19일(금)

옛사람과 새 사람

찬송 276장

에베소서 4:17-24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23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바울은 옛사람이라 칭했습니다. 옛사람이란 과거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에 따라 옛 습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반면 새 사람은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옛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마음의 허망한 것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내가 주님 앞에서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 일까요?

기도 : 주님,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2022년 8월 20일(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찬송 366장

마가복음 10:21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킨 이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율례, 규범 등을 다 지키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를 남과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 소유를 굳건히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질문 : 영생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 : 주님, 모두가 함께 나누고 누리는 주님의 길, 영생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2022년 8월 21일(주일)

당신은 어떤 부자인가요?

찬송 560장

누가복음 12:13-21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15절)

본문에는 형제와 유산 문제 때문에 골몰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은 그 일의 재판관이 아니라고 거절하시고 대신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자는 밭의 소출을 보관할 창고를 더 늘려야 할 정도로 큰 부자였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당장에 끝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얻을 분복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땅에서의 재물만 쌓는데 급급하고 하나님께 대한 것의 준비가 소홀하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후회할지 모릅니다. 고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이라는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만 한 눈이 팔려 자신의 영혼을 위한 대비를 잊지 맙시다!

질문 :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 :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소서. 아멘